‘섬진강 르네상스 시대’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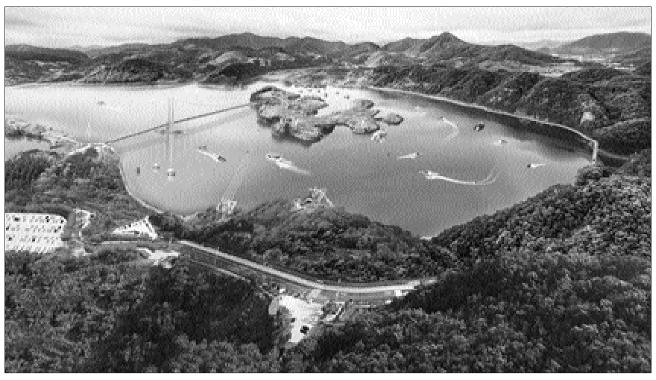
임실군, 옥정호 중심으로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제2기 에코뮤지엄 사업 본격화

임실군이 신축년 새해 전라북도의 보물인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닻을 올린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의 가시적 성과를 올해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섬진강 르네상스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를 중심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성수산과 반려동물 거점화를 연계해 임실군의 천만관광의 기틀을 다지는 군정 운영의 핵심 기치다.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은 옥정호의 친환경적인 가치를 더욱 향상시켜 명품 생태관광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임실군이 신축년 새해 전라북도의 보물인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미 군은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280억원)을 통해 에코누리캠퍼스와 붕어섬 에코가든, 에코투어링 루트, 감성투어로드 조성과 옥정호 주변을 도보로 여행하는 물 문화 둘레길 7.3㎞도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해 붕어섬 2만평 부지에 방문자 센터를 건립했으며, 소나무와 구절초와 송엽국, 철쭉, 수국 등 사계절 수목을 식재하여 올해 개장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옥정호 붕어섬을 잇는 긴 출렁다리, 4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짚라인과 스카이 워크 등이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옥정호에 구름처럼 몰려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운종교차로 개선과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옥정호의 수변 및 주변 지형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자원 개발과 산악레포츠 체험 기반시설 조성 및 수변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제2기 사업을 본격화한다.

노후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진흥 도모를 위한 개발사업 등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250억원을 투입한다.

산악레포츠 체험시설(곡선형 짚라인, 에코라이더, 알파인코스터, 커뮤니티센터, 휴게공간, 요산공원 리모델링 등)에 135억원을 투입하여 자연친화형 체험공간을 구축한다.

또한 수변 관광기반시설로 테마공원과 캠핑장, 수변데크,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등에 115억원을 투입하여 섬진강을 활용한 수변·생태·산림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섬진강 댐 건설이후 반세기 넘게 개설되지 않은 미완의 도로인 옥정호 수변도로도 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특별법이 적용돼 연차적으로 완공될 전망이다.

군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임실N치즈축제를 비롯한 사계절 축제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반려동물 테마관광지를 잇는 명품형 관광로드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옥정호는 지난 1965년 섬진강댐이 건설된 이후 반세기 넘게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아픔의 호수였지만, 이제 임실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사계절 축제와 어우러져 옥정호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호수로서 호남권의 유일한 체험 및 체류형 관광지로서 전국 각지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고추 개발 품종 농가에 본격 보급

순창군이 종묘회사인 코레곤 종묘와 공동개발로 상품화에 성공한 순창 고추 두개 품종에 대해 농가보급에 나선다.

군은 장류 원료 명품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관내 지역 5곳에서 26개 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성과 생산성 등 적합성 평가를 진행해 그 중 우수 품종 2종을 선정했다.

최종 선택을 받은 두 품종은 단위수량성과 탄저병, 농업인 참여 평가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순창지역에 적합한 장류 가공용 품종으로 선정해 각각 ‘채계’와 ‘아미’라고 지었다.

군은 지난해 12월 4일 코레곤 종묘와 순창 고추의 종자산업발전에 관한 MOU와 생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8일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한다.

순창 금과면에 위치한 장류종자센터에서 오는 8일, 15일, 22일 등 총 3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에 한해 공급하며, 공급은 코레곤 종묘가 직접 맡아 진행한다. 해당일에 구매하지 못한 농가들은 9일부터 순창군 관내 종자 판매소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군은 보급확산을 위해 해당업체와 협의를 거쳐 타 품종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 ‘채계’가 5만5,000원(1봉, 1,200립), ‘아미’가 9만원(1봉, 1,200립)으로 공급한다. ‘채계’는 바이러스 내병성 조생종이며, ‘아미’는 칼라병 내병성 대과종이다. 두 품종은 순창군이 전통장류 명맥을 유지하고자 종자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만큼 순창지역 농가만 구매할 수 있다.

관내 농민들은 해당일에 종자연구센터를 방문, 이번 고추 신품종에 대해 그동안 궁금해왔던 품종 선택법,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법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순창군은 장류 원료 명품화를 위해 종자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추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콩 종자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쌍치·복흥면~순창읍 직통버스 운영

군, 노선 개설해 하루 왕복 3회 40분 안에 연결

순창군이 그동안 정읍생활권에 있던 쌍치·복흥 주민들을 순창으로 유입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7일 쌍치·복흥면에서 순창을 잇는 직통버스 노선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버스는 쌍치·복흥면과 순창읍을 40분 안에 연결한다. 기존 쌍치·복흥에서 구림면과 인계를 경유하는 버스의 소요시간이 1시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20분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쌍치·복흥면과 순창읍의 물리적 거리가 대폭 가까워졌다. 통상 쌍치·복흥면에서 정읍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분인데 경유지가 많다는 점을 감안 하면 오히려 직통을 타고 순창읍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해석이다. 직통 버스는 7일부터 하루 왕복 3회 운영된다.

쌍치·복흥면은 거리적으로 순창읍에서 멀어 가까운 정읍으로의 교류가 많았다. 군은 그동안 거리적 소외감을 느낄 주민들을 위해 총 1,687억원이 소요되는 국도 21호선 밤재터널 시설 개량사업과 서부권관광개발사업 등 쌍치·복흥면 주민들을 위한 특화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군 소속감을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직통노선 개통도 쌍치·복흥면 주민들이 순창 시장이나 병원 등을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조치로, 지역 소속감이나 애향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순창으로 통학편의도 대폭 개선 됐다는 점에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직통노선 개통은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정서적 거리도 가깝게 연결 할 수 있는 시도”라면서 “앞으로도 쌍치·복흥주민들이 순창읍의 문화, 교육, 의료 인프라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남원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던 ‘옥외영업’을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서 옥외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옥외영업 허용장소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 건물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건축법, 도로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신규영업자는 기존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함께 옥외영업장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구비한 후 관할 지자체장에게 영업신고를 하면 되고, 기존영업자는 옥외영업에 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면적 등 변경신고를 6월까지 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1층 민원실 위생부서(063- 620-615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남원시는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이상 260㏄이하의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주기는 2년으로 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며, 검사항목은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이고,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면 된다.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며, 전기이륜차, 배기량 50㏄ 미만의 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청년농업인 4-H회 과제포 운영 수익금 기부

임실군은 청년농업인 4-H회에서 과제 실습포장을 운영하며 생산한 콩 판매수익금과 본인들이 생산한 쌀과 요구르트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임실군 청년농업인 4-H회는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영농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39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4-H회는 지난 5월부터 임실읍 성가리 소재 공동과제 실습포장에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여 8월에는 옥수수 1,900여개를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다.

임실군 청년농업인 4-H회 심다은 회장은 “지난 여름부터 회원들과 땀 흘려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일제점검

남원시는 2월 10일까지 공중화장실 12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공중화장실 시설 및 표지판 파손여부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살균 소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촬영카메라 단속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 불법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키하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편의용품 미비치, 청소상태 불량, 시설물 파손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당 관리부서에 통보해 시정을 요청하고, 불법촬영카메라가 확인된 경우 현장보존 후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무상대여 하고 있으며, 대여는 온라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한 후 수령, 일주일간의 대여기간 내에 사용을 마친 뒤 반납하는 형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